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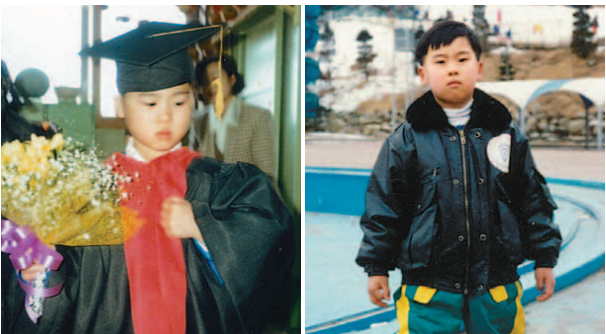


어린 시절부터 '야구 신동'으로 통한 류현진은 모교 동산중과 동산고에서 에이스 겸 4번타자로 활약했다. 당시 그를 지켜봤던 한화 스카우트는 "중장거리 타자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보였다"고 기억했다. 동산중 시절 타석에 선 류현진. 사진제공 | 류현진 부모

야구신동 류현진 투구폼부터 예뻐다



류현진은 어린 시절 고향 인천의 연고구단인 현대 유니콘스를 좋아했다. 형 현수(왼쪽) 씨와 함께 유니폼을 입고 의젓하게 포즈를 취한 류현진.



류현진의 어린 시절. 통통한 얼굴과 의젓한 표정이 웃음을 자아낸다. 사진제공 | 류현진 부모

WHO ARE RYU?

■ 6학년을 이긴 4학년 '야구 신동'

테스트 지켜보던 감독 "투수 시킴시다"
유연한 투구폼 5.6학년 형들보다 탁월
고학년에게라도 지고는 못사는 승부욕

‘별칭 진(振)’. 며칠 동안 육편을 뒤적거리던 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 어질 현(賢) 자 뒤에 어울릴 한자를 찾고 있던 참이었다. 사내아이의 이름에 쓰기에겐 이만한 게 없다고 여겼다. 류재천 씨와 박승순 씨 부부는 둘째에게 그렇게 ‘현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아들은 세계 최고 무대가 경쟁적으로 탐내는 대한민국 대표 투수로 자라났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눈앞에 둔 류현진(25·한화)의 성장 키워드를 어린시절 사진과 함께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현진아, 야구 한 번 해볼래?” 초등학교 3학년 둘째의 눈이 반짝거렸다. 심부름을 시키면 입부터 쪽 내밀다가도 “야구장 데려갈게” 한 마디에 순한 양이 되

는 아들이었다. 형과 함께 캐치볼을 하는 게 ‘놀이’였고, 야구장에 가는 게 ‘소풍’이었다. 재능이 심상치 않다 싶어 아버지가 던진 한 마디에 아들은 만세를 불렀다.

인천 창영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테스트. 류현진의 캐치볼을 잠시 지켜본 아무일 당시 감독이 말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무조건 투수를 시킵시다.” 다음 날 류현진은 전학 수속을 밟았다. 1996년 9월 26일이었다.

‘신동’이라고들 했다. 5·6학년 형들보다 4학년 류현진의 폼이 더 유연하고 예뻐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 듣고 그대로 흡수했다. 승부욕도 남달랐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6학년 형한테 밀렸다”고 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다독였다. “4학년인 네가 6학년에게 지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6학년이 됐을 때 4학년한테 지지 않으면 되는 거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들은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라고 했다. 그러나 곧 류현진이 6학년 형들을 밀어내고 에이스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게 ‘류현진’이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류현진 ‘좌투 우타’ 미스터리

공던질때 외엔 오른손잡이…ML서도 희귀한 케이스

‘대한민국 에이스’ 류현진(25·한화)은 좌투우타의 선수다.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오른손으로 타격을 한다. 우투좌타들은 국내에도 꽤 많지만, 좌투우타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드문 유형이다. 게다가 류현진은 공을 던질 때만 빼면, 늘 오른손을 쓰는 오른손잡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왼손’ 투수가 됐을까.

학창 시절의 류현진을 지켜봤던 한화 김장백 스카우트는 12일 이렇게 증언했다. “류현진이 맨 처음 야구공을 잡았을 때, 멋도 모르고 글러브를 오른손에 끼 채 왼손으로 공을 던져줬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게 편하고 공이 잘 나가서 저절로 좌완이 됐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류현진의 아버지 류재천 씨도 “의도가 있던 건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왼손으로 던지는 게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원래는 타격도 좌타석에서 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타자로 방향을 바꾼 이유가 따로 있다. 류 씨는 “처음에는 방망이도 왼손으로 쳤다. 그런데 야구장이 너무 작고 현진이는 발이 느리니, 좌타석에서 우전안타를 치고도 자꾸 1루에서 아웃이 됐다”며 “우타석으로 옮겨서 레프트 쪽으로 안타를 치니, 1루에서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바꿨다”고 설명했다. ‘야구 신동’ 류현진에게 애초에 ‘어느 손이냐’는 문제가 안 됐던 셈이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독점교섭권을 따낸 LA 다저스는 지명타자 제도가 없는 내셔널리그 소속이다. 투수도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국팬들은 좌투수이자 우타자인 류현진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배영은 기자

류현진 입단식 한국서도 연다고?

미국·국내서 연이어 입단식, 한국인 빅리그 최초
다저스 단장까지 방한 예고…류현진 위상 입증

류현진(25·한화)의 독점협상권을 따낸 LA 다저스가 ‘대한민국 에이스’를 맞이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에서도 류현진의 입단식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저스 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12일 “다저스가 최근 류현진과의 입단계약협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며 “계약이 마무리되면 한국에서도 따로 입단식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입단식 2번 여는 ‘귀한 실’

해외구단 입단식을 한국에서도 개최한 첫 선수는 한화 김태균(30)이다. 2009년 11월 일본 지바롯데와 계약한 뒤 세토야마 류조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입단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1년 12월에는 오릭스 이대호(30)가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입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무라야마 요시오 본부장과 오카다 아키노부 감독이 직접 참석했다. 류현진에 대한 다저스의 정식 역시 이에 못지않을 듯하다. 일단 LA에서 한국어로 날아오려면, 일본에서 오기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입단식이 열리면 네트 플레이터 다저스 단장도 가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저스 ‘즉시전력’으로 확실한 인정

다저스는 류현진을 데려오기 위해 이적료로만 2573만7737달러 33센트(약 280억원)를 기꺼이 쓰겠다고 결심했다. 연봉 역시 적잖은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이미 류현진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가 언론을 통해 다저스와의 신경전을 시작했다. 게다가 현지에선 “다저스는 류현진 영입으로 인해 넘치는 선발 자원을 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류현진을 유망주가 아닌 즉시전력으로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 @sd_d02

“꿈을 나누는 국민악기점”

CORONA[®]
EST. 2009

스쿨뮤직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안내



문의 : 1566-5150
김양욱 상무 : 010-9892-5150



스쿨뮤직 CORONA 대리점 : 서울 국제메디 02-747-9654 / 기타스토어 02-2215-5450 / 만파라울 0505-849-2525 / 풍기타 02-3143-7089 / 뮤직메트로 02-6404-7357 / 산울림악기 02-3672-4870/여쿠스틱갤러리 010-4620-6743 / (주) 멜앤에스 02-3442-2929 / 토크레스트 02-3471-8558 / 프리미엄기타스 02-548-5150 | 인천 (주)지평뮤직 1600-0927 / 베스트기타 070-4312-0678
우드스틱 032-3222-1670 | 부천 기타K 070-4067-5682 / 스키아뮤직 02-322-7082 | 수원 실라악기 031-238-4636 / 톤기타하우스 031-898-8254 | 안산 아바하뮤직 안산 031-493-6611 / 익기스트리 031-402-3306 | 인왕 JPS운드 070-4212-0852 | 일산 송스뮤직 031-307-3360 / 분당 미래악기 031-707-0700 / 천안 유즈드기타 041-523-1216
청주 메달악기 043-265-2929 / 원익기 043-223-7787 / 뮤직팩토리 010-3258-5810 | 대전 더존악기음향 042-488-5775 / 뮤직마스터 042-223-6399 / 뮤직맥스 010-9809-5038 | 부산 세종악기 051-861-0037 / 세종악기 051-513-0449 / 사인기타 051-818-0527 | 울산 대영기타독곡백화점 052-285-2797 / 서울악기 052-258-1818
대구 락하우스 053-425-7840 / 기타프리카 053-255-7840 / 뮤직넘버원악기 053-252-0479 | 경남 영진악기 055-243-0557 | 전북 익산아바하 063-859-3388 | 광주 아바하월드(무등악기) 금호월드점 062-350-6406 / 아바하월드 유등점 062-511-1010 | 전주 중앙악기 063-284-4700